

가을 운동회

김일홍

가을 하늘이 유리알같이 맑습니다. 드높은 파아란 가을 하늘 아래
들의 곡식이 익어가고 있습니다. 순이가 사는 청솔골은 아름다운 마
을입니다. 뒷동산에 올라가 보면 앞이 훤히 트인 넓은 들엔 소들이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습니다. 산허리를 돌아 흘러내리는 실개천 가
에선 마을 개구쟁이들이 놀고 있는데 들에서는 가을 곡식을 걷어들
이느라고 마을 어른들이 한창 바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청솔마을에는 청솔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는 해마다
가을이 되면 운동회를 엽니다. 운동회를 위하여 여름 방학이 끝나고
가을 학기가 시작되면 그때부터 각 반에서는 운동회에서 할 여러 가



고려 대학교 철학과 졸업. 2007년 신동아 논픽션 공모 「관문점」 당선.
제1회 『미주 아동문학』 신인상 동화 입선. 미주 한국문인협회 회원.

지 놀이를 연습하면서 운동회의 날을 기다립니다.

순이는 처음으로 운동회를 맞이하는 1학년 병아리반 여학생입니다. 순이는 다른 1학년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빨리 운동회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그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느 날.

1학년 병아리반의 교실문이 드르륵 열리며 선생님이 큼직한 상자를 들고 들어오셨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호기심 어린 눈망울로 상자를 쳐다봅니다. 선생님은 교탁 위에 올려놓은 상자의 뚜껑을 열어젖히시며 말씀을 하십니다.

“이번 운동회에 우리 반은 청군이 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경기는 어머니와 손 잡고 달려가 줄에 매달아 놓은 과자를 따 먹고 돌아오는 경기이다.”

아이들은 “와아” 하며 손뼉을 치고 야단법석입니다.

가을 운동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병아리반 1학년 어린이들은 운동장 한가운데 동그랗게 모여 서서 ‘태극기’ 노래와 율동을 하기로 되어 있어서 벌써부터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율동 말고 또 과자 따먹기를 한다니 여간 신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1등 하면 상을 주나요?”

순이가 손을 들고 선생님께 여쭙어 보았습니다.

“그럼, 주고말고!”

선생님이 대답하셨습니다.

“2등도 주나요?”

또 다른 친구가 여쭙어 봅니다. 또 다른 친구도 너도 나도 한마디씩 “3등도 주나요?” “몇 등까지 주나요?” 하고 여쭙어 보는데 개구장이 용이가 “선생님!” 하고 큰 소리로 선생님을 부르고 나서 “꼴등도 주나요?” 여쭙어 보고는 목을 움츠리는 시늉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실에서는 한바탕 크게 웃음소리가 일어났습니다.

“다들 나와서 하나씩 가져가요.”

선생님이 말씀하시면서 박스에서 운동회 날에 입을 런닝셔츠와 모자를 꺼내 들어 보이셨습니다

1학년 병아리반은 청군이니까 셔츠도 모자도 가을 하늘을 닮은 파란 색깔입니다. 아이들은 우르르 교단으로 몰려 나가 선생님이 주시는 파란 런닝셔츠와 파란 모자를 받아 들고 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1 등 하면 상품을 주느냐고 묻던 순이는 꿈쩍도 않고 자리에 앉아 손장난만 하고 있습니다.

“순이도 나와 가져 가야지.”

앉아만 있는 순이를 보고 선생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순이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앉아만 있습니다.

“왜 엄마가 운동회에 못 오신다고 하니?”

“.....”

순이는 대답이 없습니다. 순이는 할머니와 둘이 살고 있습니다. 순이 엄마와 아빠는 서울의 아파트 공사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밥을 해주는 자그마한 식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고생이 되더라도 언젠가 고향에 논과 밭을 사서 농사를 지으며 가족과 함께 사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식당 일이 바쁘지만 가을 운동회에는 꼭 오신다고 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서울에서 내려오실 거라고 서울 다녀오신 청솔초등학교 목수인 짚룩이 아저씨가 알려 주었습니다. 그러나 밤 늦게까지도 엄마는 오시지 않았습니다. 순이는 엄마가 운동회에 오시지 않을 것만 같아서 속이 상해 울고 싶습니다.

‘아이들은 다 엄마 손 잡고 뛰는데 나는 뭐람. 엄마만 있으면 나는 1등을 할 수 있을 거야.’

순이는 달음박질을 잘 합니다. 단짝 재희보다도 잘 달립니다. 재희는 엄마와 손 잡고 뛸 거라고 자랑을 합니다. 순이는 재희와 친한 친구이지만 운동회에서 엄마와 같이 하는 달리기 경주에서는 지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순이에게 엄마와 손 잡고 뛰는 경주에 대해 이야기를 들은 할머니는 “순이야, 이 할때하고 경주하면 안 되겠나?” 하고 안달하는 순이에게 엄마 대신 할머니와 손 잡고 경주를 하자고 합니다.

“안 돼. 싫어! 잘 건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경주를 해.”

순이는 그만 “영” 하고 울어버렸습니다.

운동회 날입니다. 꼬마 풍물 놀이패가 운동장 한가운데 서서 신나게 쾅과리, 북, 징 따위 풍물 가락에 맞춰서 긴 삭모를 뱅뱅 돌리고 있습니다. 장구를 치는 패거리들은 두 발을 구르며 훌쩍훌쩍 재주를 넘습니다. 징을 치는 패거리는 힘차게 징을 두드리고는 어깨를 으쓱 으쓱 하며 춤을 춥니다. 쾅과리를 치고, 장단에 맞추어 북을 두드리며 흥을 돋우고 있습니다. 웅원석에서는 백군과 청군이 깃발을 휘두르며 목이 터져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청군 이겨라!”

“백군 이겨라!”

운동장에는 온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오랜 만에 만나는 이웃 사람들과 환하게 웃으며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순이네 누렁이도 어슬렁거리며 여기저기 참견을 합니다. 운동장가의 말뚝에 웬 송아지 한 마리가 매어 있습니다. 누렁이는 송아지 꼬리를 물고 늘어지며 티격태격 시비를 겁니다. 송아지가 귀찮은 듯 “음메에” 소리를 지릅니다.

천막 안에는 교장 선생님과 목장을 하신다는 마을 이장님이 나란히 앉아 계십니다. 마을 어른들도 천막 안에 가득 앉아 계십니다. 교장 선생님과 마을 이장님이 웃으시며 소근소근 이야기하시는 모습이 보기에 아름답습니다. 두 분은 이 마을 청솔초등학교 동창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초등학교 시절 두 분은 꽤나 개구쟁이였을 겁니다. 어쩌다 천막 앞을 지나는 마을 사람들은 교장 선생님과 이장 어른에게 허리를 굽혀 절을 합니다.

운동장에서 “와아! 와아!” 신나는 소리가 납니다. 학년 언니들이 바구니 터뜨리기 시합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모래주머니가 하늘을 향해 날아가고 바구니에 맞는 소리가 퍽퍽 들립니다. 갖가지 색깔의 형겼으로 만든 모래주머니가 바구니를 향해 날아가는 모양도 아름답습니다. 청군의 바구니가 점점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백군의 바구니는 아직 튼튼합니다.

“와아! 와아!”

청군의 바구니가 “퍽” 하고 터졌습니다. 바구니가 열리는 순간 색종이가 눈 내리듯 쏟아지며 하늘에 수를 놓습니다. 바구니 속에 갇혀 있던 비둘기가 하나 둘 나와 운동장을 한 바퀴 돌고 멀리 날아가고 있습니다. 벌어진 바구니에는 “청솔초등학교 만세!!!”라고 쓴 현수막이 매달려 바람에 펄럭입니다. 교장 선생님, 마을 이장님, 마을 사람들이 모두 일어나 박수를 치십니다.

다음 경기는 ‘태극기’ 노래와 율동이 끝난 1학년 병아리반 어린이의 과자 따먹기 경주입니다.

“자! 병아리반 1학년 학생들, 엄마 손 잡고 나오세요.”

남자 선생님이 출발 지점에 엄마와 손 잡은 병아리 학생들을 나란히 줄을 세웁니다. 재희 어머니는 몸에 꼭 끼는 운동복을 입고 빨간

모자와 빨간 운동화를 신고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도 엄마가 오시지 않아 순이는 할 수 없이 할머니의 손을 잡고 달려야 했습니다. 할머니는 허리가 굽으셔서 잘 걷지를 못 하십니다. 걸을 때는 게처럼 옆으로 쉴룩쉴룩거리며 비스듬히 걸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언제나 할머니는 조심조심 걸어 다니시는데 어떻게 달려야 하나요. 순이는 속도 상하고 걱정입니다.

총소리가 “탕” 하고 울렸습니다.

재희와 재희 엄마가 제일 먼저 앞으로 내달리고 있습니다. 순이는 마음이 급해 할머니를 재촉합니다.

“할머니 빨리이!”

순이는 소리 지르고 할머니는 게걸음으로 쉴룩쉴룩거리기만 하고 앞으로 나가지를 못합니다.

“순이 할머니! 잘두 똬다 아!”

“순이 할머니이, 힘 내세요!”

“순이야, 빨리 빨리!”

구경 나온 마을 사람들이 저마다 소리 소리 지르며 할머니와 순이를 응원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순이 할머니가 달리는 모습을 보고 달리는 건가 걷는 건가 말하면서 웃고 있습니다. 재희와 재희 엄마는 벌써 과자를 따 먹고 풀인 지점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순이와 할머니는 과자를 따 먹으려면 아직도 한참 남았습니다. 순이는 걸음을 멈추고 할머니에게 등을 돌려 대었습니다. 할머니를 업고 달릴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도리어 할머니가 순이를 업겠다고 합니다. 이 광경을 보고 응원석에서는 더 큰 함성이 들려옵니다.

“순이 이겨라! 할머니 이겨라!”

순이는 할머니와 더 승강이를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지 할머니의

썰룩썰룩거리는 걸음걸이에 맞추어 천천히 뛰었습니다. 마지막 과자 한 개가 줄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순이와 할머니는 끝쥘로 들어왔습니다.

순이는 창피해 어쩔 줄을 몰라 하는데 할머니는 숨이 찬 듯 숨을 몰아쉬면서 함박웃음을 지으십니다. 천막 안에 앉아 있던 교장 선생님과 마을 이장님, 그리고 많은 마을 사람들이 일어나서 순이와 할머니를 환영하며 박수를 칩니다. 순이는 교장 선생님과 마을 이장님, 그리고 많은 마을 사람들이 할머니를 보고 박수를 치시며 환영하는 것을 보니 할머니가 창피하다는 생각이 사라져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할머니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순이는 할머니가 잘 뛰지 못한다고 신경질을 낸 것이 후회스러웠습니다. 순이는 돈을 벌려고 객지로 떠난 엄마보다, 아빠보다 할머니가 더 좋았습니다.

지금껏 순이는 할머니가 보살피며 키워 왔습니다. 순이는 지금까지 할머니와 떨어져 산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순이는 할머니의 마음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아빠가 할머니를 나무라면 순이는 아빠한테 대들며 할머니 역성을 듭니다.

“엄마. 아빠가 나 키웠어, 할머니가 키웠지 그치 할머니.”

그래서 엄마와 아빠는 순이의 눈치를 봅니다.

순이는 생각을 합니다. 할머니가 손 잡고 댄 것만도 만족스럽다고…….

‘1등을 하면 뭘 해,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점심 시간이 되었습니다. 순이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뒷뜰로 가서 할머니가 점심으로 만드신 김밥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운동회는 마지막으로 5학년 오빠들의 기마 싸움으로 끝이 났습니다. 어느 사이 꼬마 풍물놀이패가 운동장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신나게 긴 삭모를 뱅뱅 돌리고 훌쩍훌쩍 뛰어 넘는 재주를 피웁니다. 울

망줄망 고사리 손으로 징을 울리고, 장단에 맞추어 북을 치며 하늘이 도는지 삭모가 도는지 신나게 빙빙 돌아가고 있습니다.

남자 선생님이 호루라기를 불며 학생들을 집합시킵니다. 운동장에는 전 학생이 학년과 반 별로 나란히 섰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학년 별로 1 등, 2 등을 한 학생에게 상장과 상품을 주십니다.

한 차례 시상식이 끝나고 사회를 맡은 남자 선생님이 특별상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상이라니?”

학생들도 마을 어른들도 모두 궁금해졌습니다. 특별상은 청솔초등학교를 졸업한 마을 이장님이 가을 운동회에 내놓은 상입니다. 이장님은 가을 운동회가 여러 마을에서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것을 보시고 청솔초등학교에서는 가을 운동회가 영원히 계속할 것을 바라는 마음에서 특별상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장님은 청솔 마을을 아름답고 인심이 넘쳐흐르는 마을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특별상 시상식은 이 마을의 이장님이 하시겠습니다.”

이장님이 시상대 앞으로 나와 섰습니다. 선생님이 특별상 수상자의 이름을 부릅니다.

“특별상. 순이와 순이 할머니!”

마을 사람들과 학생들은 “와아!” 하고 소리를 지르며 박수를 칩니다. 얼떨결에 순이와 할머니는 이장님 앞에 나란히 섰습니다.

“어머니 저 창이입니다.”

이장님은 앞에 서 있는 할머니의 거치른 손을 잡고 자신의 이름을 댁니다.

할머니는 잘 보이지 않는 눈을 크게 뜨시며 창이라는 소리에 귀가 번쩍 하십니다.

“네가 창이가?”

“그러므로, 제가 창이지요.”

“아, 많이 컸데이, 그 개구쟁이가!”

마을 이장 창이의 집은 대대로 청솔마을의 이장을 지낸 집안입니다. 창이는 어렸을 적 꽤나 개구쟁이였습니다. 여름 방학 때만 되면 창이는 서울에서 고향으로 내려와 순이 할머니가 가꾸는 참외밭에 들어가 참외서리를 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순이 할머니는 창이가 참외서리를 하는 것을 알아도 모른 채 하시며 “창이야! 참외 먹고 싶으면 원두막으로 오레이”하시곤 했습니다. 그런데 개구쟁이 창이가 서울로 유학 가서 유명한 농과대학을 나와 고향에서 큰 목장을 한다니 할머니는 창이가 더 없이 자랑스럽습니다.

“오늘 어머니가 일등상보다 더 큰 상을 타시는 겁니다.”

교장 선생님과 할머니를 들러싼 온 마을 사람들과 청솔초등학교 학생들이 “와야”하며 함성을 지릅니다.

할머니는 이빨이 하나도 없는 입을 활짝 벌리시고 함박웃음을 지으십니다. 특별상은 할머니가 타는 것이라고 순이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처럼 할머니가 보배스러운 날은 없었습니다. 뒷뜰 말뚝에 매어 있던 송아지가 끌려 나옵니다. 누렁이도 줄랑줄랑 따라 나옵니다. 특별상품인 송아지가 할머니에게로 가깝게 오더니 “음메에” 할머니가 반갑다는 듯이 머리를 위 아래로 흔들고 있습니다. 누렁이도 반가운 친구를 만났다고 꼬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짚룩이 목수 아저씨가 한 마디합니다.

“송아지 잘 키워 순이 시집 갈 때 가져 가거라.”

모여 있던 마을 사람들이 “와야”하고 또 웃음 보파리가 터졌습니다.

가을 하늘이 유리알처럼 투명합니다. 하늘에서는 천사가 내려올 것 같습니다.

정해정

풀잎 하나

물은
노래가 되어
돌의 가슴 속에 스며들어
숨을 쉽니다

그 돌에서
풀잎 하나 태어나
이슬 한 방울
하늘 빛을 담을 때

물은
돌의 가슴 속에서
다시
노래를 합니다



미주 《한국일보》시, 미주 《중앙일보》소설 당선. 한국 아동문에 문학상 수상. 현재 미주아동문학가협회 회장. 미주한국문인협회 이사. 저서로는 창작동화 『빛이 내리는 집』.

<http://myhome.mijumunhak.com/chunghaechung>